

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, 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2031년 4조 달러 시장 전망

해당국가	글로벌	기관(기업)	Mordor Intelligence	동향분야	시장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시·공간
------	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-

□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대응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하며 도시 운영 플랫폼 시장을 본격 확대

- 도시 운영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투자가 확대되고,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
 - 시장 규모는 2026년 1.96조 달러에서 2031년 4.06조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, 연평균 15.65%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
 - 각국 정부는 데이터 주권 강화와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 보조금을 확대하여 스마트 시티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지속 확대
- 스마트 유틸리티가 최대 시장을 형성하는 가운데 스마트 공공안전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며 스마트시티 시장 확대를 주도
 - 스마트 유틸리티는 2025년 전체 시장의 28.44%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으며, 스마트 공공안전은 연평균 17.24%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하드웨어는 2025년 시장의 54.46%로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는 반면, 소프트웨어는 연평균 16.24% 성장하며 도시 운영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전망

□ 아시아-태평양이 세계 최대 시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과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으로 스마트시티 생태계가 빠르게 확대

- 아시아-태평양이 세계 최대 시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정부·지자체 중심의 투자 확대가 시장 성장을 견인
 - 아시아-태평양은 2025년 시장의 39.58%를 차지해 최대 시장을 유지하고, 아프리카는 연평균 18.09%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클라우드 기반 구축 방식은 시장의 66.28%를 차지하며 정부·지자체가 최대 수요처(48.34%)를 형성하고, 교통·물류 분야도 연평균 16.16%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
- 글로벌 기업들은 도시 운영 플랫폼과 스마트 인프라 경쟁을 확대하고, 스마트 모빌리티와 스마트 빌딩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을 통해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
 - 시스코, 지멘스, 화웨이, 슈나이더 일렉트릭, IBM 등이 도시 운영 플랫폼과 스마트 인프라 시장을 주도하며 글로벌 경쟁을 확대
 - 스마트 모빌리티와 스마트 빌딩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시 운영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시티 시장 성장을 지속 견인

※ 출처 : Mordor Intelligence(2026.07.27), Smart Cities Market Size, Share, Growth Analysis & Industry Research Report, 2031